

학령기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및 또래-소외 상황에서의 대처행동과 외로움*

Loneliness in School Age Children : Relationships with Locus of Control and
Coping in the Peer-Alienation Situation

민 하 영**
Min, Ha Yeoung

Abstract

The subjects of this study on the relationships of locus of control, loneliness, and coping in the peer-alienation situation were 464 sixth grade children attending 4 elementary schools in Seoul. Analysis was by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Loneliness was higher in girls than in boys and in children with external locus of control. Passive coping in the peer-alienation situation was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loneliness. Aggressive coping behavior in the peer-alienation situation was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loneliness in boys. While both locus of control and passive coping behavior in the peer-alienation situation were predictive of loneliness in school age children, passive coping behavior was a stronger predictor of loneliness than locus of control.

Key Words :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school-age children's loneliness), 통제소재(locus of control), 또래-소외 상황에서의 대처행동(coping behaviors in the peer-alienation situation)

※ 접수 2002년 2월 28일, 채택 2002년 4월 12일

* 본 연구는 2001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됨.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아동학과 전임강사, E-mail : mhycd@hanmail.net

I. 서론

학교 생활을 통해 사회적 관계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학령기 아동은 또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방법과 기술을 배울 뿐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면경 자아를 통해 자아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키기도 한다. 이는 또래 관계의 질이 사회적 관계 및 적응의 지표이며, 건강한 자아개념 형성의 중요한 척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래 관계가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 평가되는 만큼 또래에 대한 소속감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학령기 아동의 욕구는 높다. 그러나 초등학교 3, 6학년 아동의 경우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또래의 소외로 인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민하영, 유안진, 1998b)에 나타나듯이, 학령기 아동은 또래 관계로부터의 소외(isolation) 또는 친밀감 부족, 배척 등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또래 소외의 문제가 학급의 배척이나 거부아 또는 고립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래에 대한 소속감과 친밀감의 충족 욕구가 큰 일반 모든 아동의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래 소외로 인한 아동의 스트레스는 사회관계망의 주관적 결핍이나 집단에 대한 소속감의 결여로 경험되는 슬픔이나 우울한 느낌 즉, 외로움을 유발시킬 수 있다(Asher, Parkhurst, Hymel, & Williams, 1990; Cassidy & Asher, 1992; Peplau & Perlman, 1982). 외로움은 친구가 별로 없다는 양적인 문제에서 발생하거나 또래와의 친밀감이 부족하다는 질적인 문제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Peplau & Perlman, 1982).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을 또래 관계, 또래 지위 등 사회적 상호교류자인 친구와 관련시켜 살펴본 선행 연구들(도현

심, 1996; 정영인, 1988; 최보가, 임지영, 1999; Asher & Wheeler, 1985; Crick & Ladd, 1993; Parkhurst & Asher, 1992)은 외로움이 또래 관계의 불만족 또는 배척아, 고립아, 위축아 등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한 아동의 정서적 상태를 반영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동의 외로움이 또래 지위가 낮거나 또래 관계에 만족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주의깊게 지도되고 관리되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외로움에 관한 연구는 외로움이 또래 관계나 또래 지위 및 사회적 부적응의 지표라는 현상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 외로움을 지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적 정보(김소연, 이정숙, 2001)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외로움을 예방하거나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변인 규명, 특히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해석하고 이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도록 하는 아동의 내적 특성에 대한 변인 규명은 외로움의 관리나 지도에 필요한 중요한 방법론적 정보가 될 수 있다.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내적 특성은 문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기 보호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아동 스스로의 적응력을 높이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변인을 규명함으로써, 외로움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자기 보호 능력을 제발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아동의 내적 특성 중 내외통제소재는 자신과 타인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경험되는 외로움을 설명할 수 있는 인성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내외통제소재는 자신과 타인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 자신과 타인의 행동 및 사건의 결과에 대

한 원인을 지각하는 인성 특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내외통제소재를 개념화한 Rotter(1954, 1996)는 원인 지각의 소재 즉, 통제력의 소재에 따라 내적인 통제소재와 외적인 통제소재로 구분하였다. 자신과 타인의 행동 및 사건의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내적인 능력이나 노력에 있다고 일반적으로 믿는 경우 내적인 통제소재의 사람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행운, 기회, 또는 운명 등 자기 외적인 요인에 있다고 일반적으로 믿는 경우 외적인 통제소재의 사람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직면한 문제 상황이나 욕구 좌절 상황에서 내적인 통제 소재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적응적인 가치관, 태도, 행동, 반응 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내적인 통제소재는 불우한 처지의 아동을 보호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유안진·민하영, 2001; Werner & Smith, 1992). 반면 외적인 통제소재의 사람은 사건의 결과 원인이 자기 외적인 요인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 방해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할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해 더 많이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민하영·유안진, 2000; 송금희·김효심, 1993; Parke, 1984). 이러한 내외통제성향을 고려해볼 때, 외적통제소재 아동은 또래 관계로부터의 소외 또는 배척에 대한 해결의 힘을 외부 즉 또래에 두기 때문에 또래 관계로부터의 소외나 배척시 내적통제소재 아동에 비해 더 큰 외로움을 경험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처행동 특성도 외로움을 설명할 수 있는 아동의 내적 요인으로 고려 될 수 있다. 대처행동이란 직면한 스트레스를 처리하기

위한 인지적, 행동적 노력(Lazarus, 1991)이며 스트레스를 해결하거나 감소 또는 대처시키는 반응을 의미(Kagan, 1988)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수준보다 개인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Hardy, Power, & Jaedicke, 1993). 외로움이 친구 관계로부터 유발되는 불쾌한 정서적 상태라면, 친구 관계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외로움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래 관계와 관련되어 연구되고 있는 외로움에 관한 기존 연구는 외로움이 유발될 수 있는, 즉 또래-소의 상황과 같이 단절감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동이 사용하는 대처행동이 외로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또래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전략이 친사회적 아동, 위축 아동, 공격적 아동과 같은 또래 지위와 관련 있다는 연구결과(송미선, 2001; Chung & Asher, 1996; Rose & Asher, 1999)와 함께 외로움이 또래 지위와 관련 있다는 연구결과(Asher, Hymel, & Renshaw, 1984; Asher & Wheeler, 1985; Parkhurst & Asher, 1992)에 근거하여, 외로움을 또래-소의 상황에서의 대처행동 특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는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내외통제소재와 또래-소의 상황에서의 대처행동 특성 등 아동의 내적 특성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궁극 목적은 아동이 문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내적인 자기 보호 요인을 계발시켜 자신의 적응력을 스스로 강화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는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은 내외통제소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는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은 또래-소의 상황에서의 대처행동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는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대한 내외통제소재 및 또래-소의 상황에서의 대처

행동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의 해결은 외로움으로부터 아동의 자기 보호 능력 개발 외에 일선 초등학교 교사나 교육기관 종사자가 교우 관계 문제를 지닌 아동의 지도와 상담시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아동관련 연구기관에서 외로움의 문제를 중재하거나 예방하는 프로그램 개발시 기초 정보로 사용할 수 있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내 4개 초등학교 6학년 남녀 아동 479명을 조사대상으로 임의 표집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남녀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청소년기 진입기로 또래 관계내 친밀감이 증가(Larson & Richards, 1991)하면서 또래로부터의 따돌림이나 무시, 거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시기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표집대상 중 부실기재자(15명)의 자료를 제외하였으며 남자 239(51.1%)명, 여자 225(48.1%)명 등 총 464명의 자료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1) 대처행동 척도

민하영과 유안진(1998a)이 개발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일상적 생활 스

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는 적극적 대처행동(9문항), 소극적 대처행동(11문항), 공격적 대처행동(6문항), 회피적 대처행동(9문항),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5문항) 범주의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공격적 대처행동의 6문항을 기준으로, 적극적, 소극적, 회피적 대처행동에서 설명력이 높은 6개의 문항을 각각 선정하였다. 한편 공격적 대처행동 6문항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5문항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6개 문항으로 문항 수를 조정한 것은 문항 수가 가장 적은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보다 공격적 대처행동의 6문항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각 범주별 대처행동에서 설명력 있는 문항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적극적, 소극적, 공격적, 회피적 그리고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의 내적 일치도에 따른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각각 .73, .63, .77, .56 그리고 .75로 나타났다.

대처행동에 대한 응답방식은 친구-소의 상황(친구간 이야기나 놀이에 끼워주지 않거나,

등·하교때 함께 가지 않거나 생일이나 특별한 모임에 초대하지 않는 등 친구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되는 상황)에 대한 평소의 대처행동을 ‘전혀 그렇게 안한다(0점)’ ‘그렇게 하는 편이다(1점)’ ‘많이 그렇게 하는 편이다(2점)’ ‘항상 그렇게 한다(3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범주별 대처행동의 점수분포는 0-18점이다. 한편 5문항으로 구성된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의 점수분포는 0-15점이지만,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의 합에 1.2를 곱해줌으로써 6문항으로 구성된 다른 범주의 대처행동과 동등한 점수분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다.

2) 내외통제소재 척도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측정을 위해 Nowicki와 Strickland(1973)의 아동용 통제소재 척도(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Connell(1985)의 아동의 통제력 지각에 대한 다차원적 척도(Multidimensional Measure of Children's Perception of Control) 및 민하영과 유안진(2000)의 통제소재 척도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내외통제소재 척도는 내적인 통제소재(9문항)와 외적인 통제소재(9문항)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Likert 방식을 이용하였다. 내적인 통제소재 문항의 경우 각각 4에서 1의 점수를 주고, 외적인 통제소재 문항의 경우 역산 처리함으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인 통제소재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18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응답범위는 18-72점이며,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따른 신뢰

도 계수 Cronbach's α 는 .67로 나타났다.

3) 외로움 척도

아동의 외로움 척도는 Asher와 Wheeler(1985)가 개발한 아동의 외로움에 관한 척도(Children's Loneliness Questionnaire : CLQ)를 토대로 도현심(1996)이 개발한 외로움 척도를 사용했다. 문항은 학교에서의 아동의 외로운 감정, 사회적 적응감, 그리고 또래 지위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에 대한 응답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이루어진 4점 Likert 방식을 취하였다.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응답범위는 12-48점이며 높은 점수는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는 외로움이 큰 것을 의미한다. 한편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8로 나타났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서울시내 중류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임의로 표집된 4개 초등학교 6학년 남녀 아동 479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 사용 질문지는 연구 목적을 충분히 이해한 각 학교 학급 담임의 도움을 받아 교실에서 배부되었으며 배부된 질문지는 현장에서 응답된 후 회수 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15부의 질문지가 제외되었으며 464부의 질문지가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형 SPSS 프로그램의 t검증, 이원변량분석, 그리고 중회귀분석에 의해 분석되었다.

Ⅲ. 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관련 변인에 대한 평균, 최소-최대값 등을 알아보았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령기 아동들은 친구 관계에서 소외감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태도(M=5.69, SD=3.53)만큼 회피적으로 대처하려는 경향(M=5.46, SD=3.27)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구로부터 소외 시, 주변의 사회적 지지나 도움을 통해 해결하려는 행동(M=3.05, SD=2.73)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 내외통제소재 및 대처행동에 관한 일반적 자료

변 수	평균(SD)	최소-최대
외로움(460)	24.1(6.8)	12-45
내외통제소재(429)	60.6(7.64)	32-72
적극적 대처행동(440)	5.69(3.53)	0-17
소극적 대처행동(436)	4.61(4.32)	0-18
회피적 대처행동(437)	5.46(3.27)	0-17
공격적 대처행동(433)	4.79(4.21)	0-18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431)	3.05(2.73)	0-12

한편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3.89, p<.001$). 즉, 여아가 남아에 비해 학교 생활에서 더 많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는 외로움과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및 또래-소외 상황에서의 대처행동간의 관련성을 남녀 아동에 따라 각각 분석하였다. 성별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분석하는 것은 외로움과 독립 변인간의 순수한 효과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외로움과 독

립 변인간의 관계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는 잇점이 있다.

<표 2> 성별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

성별 구분(n)	외로움 평균(S.D)	t값
남아(239)	20.5(6.73)	-3.89***
여아(225)	23.0(6.82)	

*** $p<.001$

(연구문제 1) 학령기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외로움

내외통제소재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내외통제소재 점수 상, 하위 30%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내적통제 아동과 외적통제 아동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남녀 아동별로 내외통제소재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을 t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3>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은 남녀 모두 아동 자신의 내외통제소재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남아 : $t=-5.12, p<.001$, 여아 : $t=-4.58, p<.001$). 외적인 통제소재의 아동은 내적인 통제소재의

<표 3> 내외통제소재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

성별	내외통제소재 구분(n)	외로움 평균(S.D)	t값
남아	내적통제소재 아동(93)	18.25(5.40)	-5.12***
	외적통제소재 아동(46)	24.28(8.39)	
여아	내적통제소재 아동(45)	19.67(5.84)	-4.58***
	외적통제소재 아동(72)	25.11(6.51)	

*** $p<.001$

아동보다 또래 관계에서 좀더 높은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 학령기 아동의 또래-소외 상황에서의 대처행동과 외로움

또래-소외 상황에서의 대처행동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각각의 대처행동 점수 상,하위 30%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대처행동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t검증을 통해 또래-소외 상황에서의 대처행동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을 남녀 아동별로 각기 살펴보았다.

<표 4>에서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과 친구-소외 상황에서의 대처행동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또래-소외 상황에서의 대처행동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외로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또래-소외 상황에서 아동이 사용하는 소극적($t=3.83, p<.001$) 대처행동과 공격적 대처행동($t=3.43, p<.001$)에 따라 외로움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여아

의 경우 또래-소외 상황에서 아동이 사용하는 소극적($t=2.90, p<.01$) 대처행동에서만 외로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친구-소외 상황에서 남녀 아동 모두 소극적으로 대처할수록 그리고 남아의 경우 공격적으로 대처할수록 아동이 또래 관계에서 경험하는 외로움은 더욱 높게 보고되었다.

<표 5> 내외통제소재와 또래-소외 상황에서의 대처행동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

	변량원	df	SS	MS	F
남아	내외통제소재×적극적 대처행동	1	28.99	28.99	.64
	내외통제소재×소극적 대처행동	1	.67	.67	.02
	내외통제소재×회피적 대처행동	1	22.14	22.14	.59
	내외통제소재×공격적 대처행동	1	176.29	176.29	4.14*
	내외통제소재×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	1	6.29	6.29	.16
	변량원	df	SS	MS	F
여아	내외통제소재×적극적 대처행동	1	11.95	11.95	.31
	내외통제소재×소극적 대처행동	1	25.77	25.77	.72
	내외통제소재×회피적 대처행동	1	8.61	8.61	.20
	내외통제소재×공격적 대처행동	1	.19	.19	.01
	내외통제소재×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	1	25.45	25.45	.56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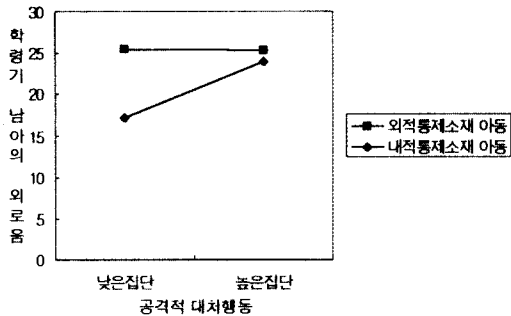
<표 4> 또래-소외 상황에서의 대처행동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

대처행동유형	대처행동 집단구분 (남자n) (여자n)	남자		여자	
		외로움 평균(SD)	t값	외로움 평균(SD)	t값
적극적	높은 집단(59) (63)	20.4(7.31)	-.39	22.3(6.90)	.36
	낮은 집단(81) (50)	20.9(7.49)		22.8(7.31)	
소극적	높은 집단(39) (89)	24.1(8.15)	3.83***	24.5(6.69)	2.90***
	낮은 집단(120) (59)	19.3(6.29)		21.2(6.81)	
회피적	높은 집단(51) (57)	21.5(7.19)	1.14	23.6(7.12)	1.16
	낮은 집단(76) (56)	20.0(6.80)		22.1(7.08)	
공격적	높은 집단(55) (57)	23.3(7.22)	3.43***	22.4(7.82)	.54
	낮은 집단(89) (62)	19.3(6.34)		21.7(6.71)	
사회지지 추구적	높은 집단(52) (61)	21.1(6.77)	.72	22.8(6.41)	.23
	낮은 집단(100) (59)	20.3(6.83)		22.5(7.64)	

*** $p<.001$

〈표 6〉 내외통제소재와 또래-소의 상황에서의 공격적 대처행동에 따른 학령기 남자 아동의 외로움 (N=78)

내외통제소재	공격적 대처행동 집단 구분	외로움 평균
내적통제소재 아동	높은 집단(11)	23.9
	낮은 집단(38)	17.2
외적통제소재 아동	높은 집단(18)	25.4
	낮은 집단(11)	25.5



〈그림 1〉 내외통제소재와 공격적 대처행동에 따른 학령기 남아의 외로움

한편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이 내외통제소재와 대처행동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받는지를 이원변량분석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펴본 결과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자의 내외통제소재와 공격적 대처행동에서만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14, p<.05$).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표 6>에서와 같이 학령기 남자 아동의 외로움을 내외통제소재와 공격적 대처행동에 따라 비교해 보았다. 외적통제소재 아동의 경우 공격적 대처행동의 정도가 외로움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내적통제소재 아동의 경우 공격적 대처행동 수준 정도가 외로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참조).

(연구문제 3)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대한 내외통제소재와 또래-소의 상황에서의 대처행동의 상대적 영향력

내외통제소재와 또래-소의 상황에서의 대처행동이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유의한 영향을 각각 미친다는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의 결과를 토대로, 외로움에 대한 이들 독립변인의 상대적 영향력과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회귀분석 실시 이전에 남녀 각각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산출($r=-.01 \sim .56$)하여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Durbin-Watson 검증($D-W=1.7 \sim 1.9$)을 통해 오차항간의 자기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중회귀분석 결과 <표 7>에서 처럼, 남아의 경우 내외통제소재와 또래-소의 상황에서의 대처행동은 외로움의 전체 분산 중 2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F=11.21, p<.001$), 외로움에 대한 내외통제소재와 또래-소의 상황에서의 대처행동의

〈표 7〉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대한 내외통제소재와 또래-소의 상황에서의 대처행동의 중회귀분석

	남자(N=188)		여자(N=183)		
	외로움		외로움		
	B	β	B	β	
상수	42.82		36.89		
대처행동	내외통제소재	-.37	-.36***	-.25	-.25***
	적극적 대처행동	-.13	-.07	.12	.06
	소극적 대처행동	.88	.41***	.47	.32***
	회피적 대처행동	-.19	-.09	-.12	-.06
	공격적 대처행동	4.188E-02	.02	-.14	-.09
	사회지지추구적대처행동	-.33	-.12	-.30	-.12
F	11.21***		5.84***		
R ²	.27		.17		

***p<.001

설명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여아의 경우 외로움에 대한 내외통제소재와 또래-소의 상황에서의 대처행동의 설명력이 남아에 비해 떨어지나, 외로움의 전체 분산 중 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5.84, p<.001$). 한편 남녀 아동 모두 내외통제소재와 함께 대처행동 중 소극적 대처행동만이 외로움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적인 통

제소재 성향이 클수록, 소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또래 관계로부터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녀 아동 모두 내외통제소재(남자: $\beta=-.36, p<.001$, 여자: $\beta=-.25, p<.001$)보다 소극적 대처행동(남자: $\beta=.41, p<.001$, 여자: $\beta=-.32, p<.001$)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논의

서울시 소재 4개 초등학교 6학년 남녀 46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는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을 성별의 효과를 통제 한 채 내외통제소재와 또래-소의 상황에서의 대처행동과 관련시켜 살펴본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는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은 내외통제소재 따라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즉 남녀 아동 모두 내적인 통제소재 아동에 비해 외적인 통제소재 아동이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내적인 통제소재 아동이 외적인 통제소재 아동에 비해 높은 사회적 능력을 나타내며, 더 적극적이며, 좌절에 더 건설적으로 대처한다는 선행 연구결과(김선미, 1996; 민하영, 유안진, 2001; Goswick & Jones, 1981; Hart, Hoffman, Edelstein, & Keller, 1997; Pittman & Pittman, 1979)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외적인 통제소재 아동의 경우 행동 결과에 대한 강화의 근원을 환경 등 외재적인 것으로 지각하여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또래와의 관

계 개선 대한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에 대해 확신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또래 관계에서 더 많은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반면 내적인 통제소재 아동의 경우 행동 결과에 따르는 강화의 원인을 스스로의 노력, 동기, 태도 등 내재적인 것으로 지각하여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적극적이며 건설적일 수 있다. 따라서 또래 관계에서의 외로움을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남녀 아동 모두 내적인 통제소재 아동이 외적인 통제소재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외로움을 경험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외적인 통제소재 발달이 문제 상황에서 아동의 취약성을 강화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적인 통제소재 발달이 문제 상황에서 아동 스스로 자기의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자기 보호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동에게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과 기대를 갖도록 통제소재를 내재화시키는 것은 아동의 자기 보호 능력을

제발하고 향상시키는 것으로, 또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는 학령기 남녀 아동의 외로움은 또래-소외의 상황에서 아동이 사용하는 대처행동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남녀 아동 모두 또래-소외 상황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아동일수록 높은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과 소극적 대처행동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는 것은 또래 갈등 상황에서 위축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소극적인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결과(Chung & Asher, 1996)와 일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극적 대처행동이 내향성이나 수줍음과 마찬가지로 대인관계에서의 소극적 태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외로움이 내향성(박선영, 1998)과 수줍음(도현심, 1996b; 도현심, 1998)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소극적 대처행동이 아동이 경험하는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극적 대처행동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보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래와의 문제 발생시 자신의 감정을 혼자서 조용히 표현하거나 소망적 또는 환상적 사고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소극적 대처행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유보하는 행동이라 볼 수 있다. 또래 소외와 같은 또래 문제 발생시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친구 관계는 종결되기 쉽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면 친구 간에 공통된 근거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돈독해 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Hartup & Laursen, 1993)를 고려할 때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유보한 채 자신의 감정을 해결하려는 소극적 대처행동은 발전된 또래 관계를 모색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결

국 또래 소외 상황을 소극적으로 대처행동하는 아동은 또래 관계 진입을 유보한 채 혼자 남게 됨으로써 높은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남아의 경우 여아와 달리, 또래-소외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대처할 경우 높은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아들은 여아들에 비해 또래 갈등에 반응하는 데 있어 위협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Sheldon, 1990), 또래 갈등을 공격적으로 대처하는 아동일수록 친구가 적으며, 높은 우정 갈등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결과(Rose & Asher, 1999)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공격적 대처행동은 또래로부터 배척이나 소외를 더욱 유발시키기 때문에,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남아는 그렇지 않은 남아에 비해 더 큰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남녀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통제소재와 대처행동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으나 남아의 외로움은 내외통제소재와 공격적 대처행동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다. 즉, 외적인 통제소재 성향이 있는 남아의 경우 공격적 대처행동의 정도에 관계없이 높은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적인 통제소재 성향이 있는 남아의 경우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할 경우 외로움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외적인 통제소재 남아의 경우 공격적 대처행동의 지도와 관리 이전에 외적인 통제소재 성향을 극복하도록 하는데 우선 초점을 두는 것이 외로움 예방에 효율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내적인 통제소재 남아의 경우 공격적 대처행동에 대한 지도와 관리가 외로움 예방에 우선 도움이 됨을 시사하는 것이

다.

넷째, 학령기 남녀 아동의 외로움은 내외통제소재와 소극적 대처행동 등 아동의 내적 특성에 의해 영향받으나, 내외통제소재보다 또래-소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소극적 대처행동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내적인 통제소재의 내재화 및 소극적 대처행동 지양이 학교 생활에서의 외로움으로부터 아동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 원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외로움에 대한 내외통제소재와 대처행동의 설명력은 남녀 아동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남아의 경우 외로움에 대한 독립변인의 설명력 2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여아의 경우 외로움에 대한 독립변인의 설명력이 1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외로움에 대한 독립변인의 설명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남녀 성별에 따라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다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내적 특성 중 자기 보호 요인을 이용한 외로움 예방이나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 남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것이다.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는 외로움의 관련 변인으로써 내외통제소재와 대처행동 등 아동의 내적인 특성을 규명한 이 연구는 내적통제소재와 대처행동 특성을 자기 보호 요인으로 개발시킬 수 있음을 제안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연구결과 적용시 주의가 요망된다. 첫째, 이 연구의 결과는 임의로 표집된 서울시 소재 일반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내외통제소재 성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그리고 사회적 지지추구의 대처행동이 많

이 나타나는 저학년 아동이나 언어장애, 신체장애 등 특수 아동의 외로움을 설명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 둘째,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은 학교 환경 뿐 아니라 가정 환경에서도 형성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외로움을 학교 생활에 한정하여 측정함으로써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외로움을 전반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한편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내외 통제소재와 대처행동 등 내적인 특성만을 고려함으로써 외로움을 설명하는 다양한 변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외로움은 내적인 특성 뿐 아니라 학습 부진(Shireen & Lisa, 2000)이나 빈곤 또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같은 가정 환경(도현심, 1996; 박선영, 1998)과 같은 외적이며 물리적인 환경 특성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외로움의 개념적 범위를 확대할 뿐 아니라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로움이 또래 지위와 유관함을 고려할 때,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통제소재 및 대처행동의 영향력은 또래 지위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또래 지위를 통제하지 못한 채 내외통제소재 및 대처행동과 외로움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영향력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했으면 한다. 한편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취학 전 유아교육 기관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로움의 문제는 학령기에 국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취학 전 유아의 외로움 규명은 외로움의 조기 예방 및 치료에 유용한 도움을 제공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선미(1994).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소연·이정숙(2001). 사회극이 아동의 외로움과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2(3), 75-90.
- 도현심(1996a).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과 아동의 외로움. *대한가정학회지*, 34(6), 1-11.
- 도현심(1996b). 아동의 수줍음, 대인 적응성 및 또래 수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33-45.
- 도현심(1998). 인성특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2), 1-8.
- 민하영·유안진(1998a).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6(7), 83-96.
- 민하영·유안진(1998b).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아동학회지*, 19(2), 77-96.
- 박선영(1998). 가족기능 및 인성특성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안진·민하영(2001). 시설 보호 아동의 자아정체감 및 내적인 통제 소재와 보육사가 평가한 행동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97-109.
- 송금희·김효심(1993). 가정환경에 따른 청소년의 내외 통제성과 욕구좌절 반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67-79.
- 송미선(2001). 또래갈등상황에서의 유아의 전략, 사회적 행동 특성 그리고 또래 수용도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229-239.
- 정영인(1988). 인기도에 따라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 및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보가·임지영(1999).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 Asher, S. R., Hymel, S., & Renshaw, P. D. (1984). Lonelines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456-1464.
- Asher, S. R., Parkurst, J. T., Hymel, S., & Williams, G. A. (1990). Peer rejection and loneliness in children.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253-273). N Y : Cambridge Univ. Press.
- Asher, S. R. & Wheeler, V. A. (1985). Children's loneliness : A comparison of rejected and neglected peer status.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4), 500-505.
- Cassidy, J., & Asher, S. R. (1992). Loneliness and peer relation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350-365.
- Chung, T., & Asher, S. R. (1996). Children's goals and strategies in peer conflict situa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42(1), 125-147.
- Connell, J. P. (1985). A new multidimensional measure of children's perceptions of control. *Child Development*, 36, 91-109.
- Crick, N. R. & Ladd, G. W. (1993).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eer experiences : Attributions, loneliness, social anxiety, and social avoid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9(2), 244-254.
- Goswick, R. A. & Jones, W. H. (1981). Loneliness, self-concept, and adjustment. *J. of Psychology*, 107, 237-240.
- Hardy, D. F., Power, T. G., & Jaedicke, S. (1993). Examining the relation of parenting to children's coping with everyday stress. *Child Development*, 64, 1829-1841.
- Hart, W. W., Hoffman, V., Edelman, W., & Keller, M. (1997). The relation of childhood personality types to adolescent behavior and development : A longitudinal study of Icelandic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195-205.

- Hartup, W. W. & Laursen, B. (1993). Conflict and context in peer relations, In C. Hart(Ed.), *Children on playgrounds : Research perspectives and applications*(pp. 44-84). Ithaca : SUNY Press.
- Kagan, J. (1988). Stress and coping in early development. In N. Garnezy & M. Rutter(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Baltimore, MD : Johns Hopkins Univ. Press.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103-1118.
- Larson, R. W. & Richards, M. H. (1991). Daily companionship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 Changing developmental contexts. *Child Development*, 62, 284-300.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NY : Oxford Univ. Press.
- Nowicki, S., & Strickland(1973). 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1), 148-154.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 Parkes, K. R. (1984). Locus of control, cognitive appraisal, and coping in stressful episode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3), 655-668.
- Peplau, L. A. & Perlman, D.(Eds.)(1982). *Loneliness :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Y : Wiley.
- Pittman, N. L. & Pittiman, T. S. (1979). Effects of amounts of helplessness training and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on mood and performance.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39-47.
- Rose, A. J. & Asher, S. R. (1999). Children's goals and strategies in response to conflicts within a friend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5(1), 69-79.
- Rotter, J. B. (1954). *Social learning and clinical psychology*. Engel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Rotter, J. B. (1996). General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30(Whole No. 609).
- Sheldon, A. (1990). Pickle fights : Gendered talk in preschool disputes. *Discourse Processes*, 13, 5-31.
- Shireen, P. & Lisa, M. (2000). Loneliness and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in inclusive classrooms : Self-perceptions, coping strategies, and preferred interventions. *Learning Disabilities Research & Practice*, 15(1), 22-33.
- Werner, E. E. & Smith, R. S. (1992). *Overcoming the odds :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Ithaca, NY : Cornell Univ. Press.